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 홍 국

(우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2권 제11호 통권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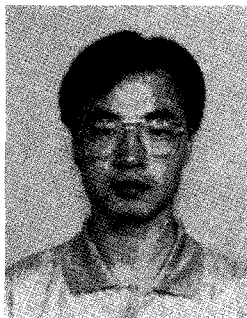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농정의 전환과 계육산업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5년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국민총생산규모는 '80년 368,570억원에서 '90년 1,782,621억원, '95년에는 3,482,843억원(추정치)으로 '80년에 비하여 9.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에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2%, 8.7%, 6.6%로서 '95년에는 '80년에 비하여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생산부분만을 산출하였을 경우이나 농업투입재, 농업경영지원 산업,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등을 포함할 경우 농업 관련 산업의 국내총생산액은 16.1%('9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약 8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아 점점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생산분야에 비하여 관심의 초점이 관련 산업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하며 농업의 개념에 대한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하여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히 정부는 지난 9월말 농림어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현행 생산위주에서 유통, 가공, 안정성 및 품질보증, 관광, 외식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관련산업(애그리비즈니스)을 생산관련산업(농림수산물생산업, 농업투입재산업, 농업경영지원산업)과 생산외관련산업(식품가공, 유통보관수송, 무역, 외식 및 가공기계)으로 구분하고 자금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 농업은 한층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집약화와 기술수준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자, 유통가공업자에게 반영되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품질, 가격, 공



이 철 희 박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급량, 공급시기 등이 생산단계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는 식품유통전체에 있어서 관계주체 상호간에 긴밀하게 조정되어 거래되는 방식이 형성되게 된다. 그 결과 출하자와 소비자가 분명한 생산, 유통시스템의 형성과 수직적 통합에 의한 생산물과 투입자재의 내부조직적 거래로 이동되는 것이 많아진다. 이러한 농업의 산업화 과정속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주도해온 계육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식생활 및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꾸준하게 외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화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닭고기를 이용한 각종 식품개발이 필요하다. 즉 식생활과 생산, 유통, 소비패턴 변화에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개발의 문제이다. 소비자의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으로 계육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양질의 계육원료의 확보문제이다. 우수한 품질의 원료계육을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닭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외식산업의 문제이다. 소비자의 요구 및 기호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취약한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각종 원료조달의 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계육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총체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식품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은 매우 크므로 모든 닭고기산업 관련분야에서 힘을 모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